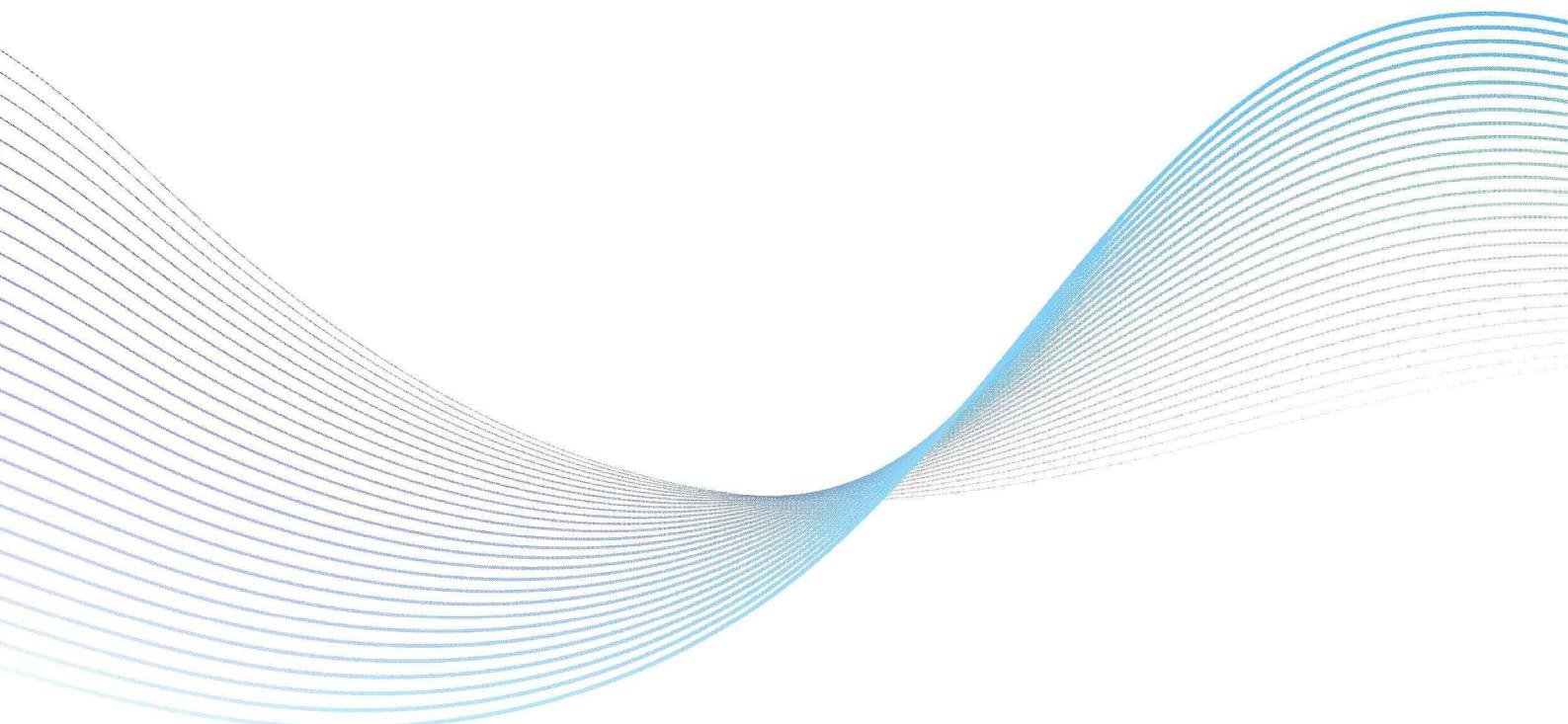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Safe Seoul 활동보고서

2020 서울시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본 활동보고서는

2020 서울시 성평등기금 사업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본 활동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서울시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1. 서론	1
가. 디지털 성범죄 유형별 발생 추이	1
나.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 현황	4
2. 트위터 내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계정 모니터링 및 신고 개요	6
가. 모니터링 및 신고 프로세스 설계	6
나. 트위터 내 디지털 성범죄 사건 처리	7
다. 디지털성범죄 가해자 고발	8
1) 사이버수사대 신고 및 고발장 접수 절차	8
2) 고발 현황 및 적용 법률	9
3) 고발장 접수 과정에서의 한계 및 시사점	11
3. 트위터 내 디지털 성범죄 실태 및 문제점	12
가. 트위터 내 디지털 성범죄의 주요 유형 및 실태	13
1) 지인능욕형 사진 합성 및 딥페이크	13
2) 불법 촬영물 게시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통	21
나. 트위터 플랫폼 자체의 문제점	29
1)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거의 취득하지 않아 익명성이 강함	29
2) 해시태그 기능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의 확산	30
3) 여성에 대한 성착취를 묵인 및 조장하는 기관으로 기능	33
4) 트위터 플랫폼 내부 신고 기능의 효용성 부재	35
참고문헌	37

[표 목차]

[표1]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 검거 추이 (경찰, 2015-2019)	2
[표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성별 및 연령 현황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8-2019)	2
[표3] 디지털성범죄 피해 유형별 현황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8-2019)	3
[표4] 디지털성범죄 피해시 개인정보 유출 현황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8-2019)	3
[표5] 트위터 내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계정 모니터링 및 신고 프로세스	6
[표6] 트위터 내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계정 모니터링 주요 키워드(#)	7
[표 7] 모니터링 월별 신고 통계 및 신고 유형	7
[표 8] 가해자 추적 신고 회신 건(58건)	8
[표 9] 디지털 성범죄 고발 가해 유형	9
[표 10] 디지털 성범죄 고발 적용 법조	10
[표 11] 디지털 성범죄 고발 적용 법조	10
[표 12] 가해자 계정 신고 통계(2020년 10월~2021년 2월)	14
[표 13] 가해자 계정 신고 통계(2020년 10월~2021년 2월)	21
[표14] 트위터 내 디지털 성범죄 관련 주요 해시태그 키워드	31
[표 15] ['성매매·음란' 정보 SNS별 시정요구 현황]	33

[그림 목차]

[그림1] <온 서울 세이프 On Safe Seoul> 사업 소개	4
[그림2] 서울시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 디지털 성범죄 유형별 피해지원('19.10~'20.8)	4
[그림3] 도담별 사업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신고 및 상담)	5
[그림 4] 지인능욕형 사진 합성 및 딥페이크 가해 사례 1	16
[그림 5] 지인능욕형 사진 합성 및 딥페이크 가해 사례 2	17
[그림 6] 지인능욕형 사진 합성 및 딥페이크 가해 사례 3	17
[그림 7] 지인능욕형 사진 합성 및 딥페이크 가해 사례 4	18
[그림 8] 지인능욕형 사진 합성 및 딥페이크 가해 사례 5	18
[그림 9] 지인능욕형 사진 합성 및 딥페이크 가해 사례 6	19
[그림 10] 지인능욕형 사진 합성 및 딥페이크 가해 사례 7	20
[그림 11] 불법 촬영물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통 사례 1	25
[그림 12] 불법 촬영물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통 사례 2	26
[그림 13] 불법 촬영물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통 사례 3	27
[그림 14] 불법 촬영물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통 사례 4	27
[그림 15] 불법 촬영물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통 사례 5	28
[그림 16]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영상물 거래 시 트위터 내 DM 기능 활용 요청 사례	29
[그림 17]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영상물 거래 시 트위터 외 타 플랫폼 계정 요청 사례	30
[그림 18] 트위터 게시물을 백업하는 외부 플랫폼 사례	32
[그림 19] 트위터 게시물을 백업하는 외부 플랫폼 사례	33
[그림 20] 트위터 내 유사 성매매 암시 사례	34
[그림 21] 디지털 성범죄 유통 채널로서의 'DM' 관련 사례 1	34
[그림 22] 디지털 성범죄 유통 채널로서의 'DM' 관련 사례 2	35
[그림 23] 트위터 내 개인정보 침해 신고 화면 사례	36
[그림 24] 트위터 내 성적 게시글 신고 화면 사례	36

1. 서론

본 활동보고서는 서울시 성평등기금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Safe Seoul' 프로젝트로 2020년 8월~ 2021년 2월까지 6개월 간 진행되었던 사업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본 사업의 주요 활동은 ① 아동·청소년의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상담·신고할 수 있는 On Seoul Safe 내 신고창구인 도담별 흥보, ② SNS 등에서 일어나는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모니터링을 통해 SNS 내 신고 및 고소·고발을 진행하였다.

본 활동보고서의 목적은 트위터를 중심으로 6개월간 진행한 디지털성범죄 모니터링 현황과 실태를 알리고자 한다. 이에, 서론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발생 유형 추이 및 서울시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디지털 성범죄 유형별 발생 추이

각종 디지털 성범죄는 점차 지능화되어 조직화된 집단 성착취의 양태로 심화되고 있다. 이를 드러내는 2020년의 대표적인 사건은 ▲텔레그램 내 집단 성착취와 ▲웹 캠투 비디오(W2V)의 운영 및 이용이다. 이 두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가 성착취물의 제작, 유포, 소지, 범죄수익 창출 및 은닉, 유포 협박, 사전 범행모의, 오프라인 범행 연계 등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한편,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불법촬영물의 경우 제작, 유포, 소비, 가담 등을 통해 재유포가 심각하고 피해촬영물의 완전한 삭제가 어렵다. 그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 규모 역시 광범위하므로 정부의 개입이 강화될 필요성이 대두된다.

[표1]의 경찰청 경찰범죄통계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의 검거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검거인원의 성별은 남성이 압도적으로 나타나 디지털 성범죄가 성별화된 범죄임을 나타낸다. 검거인의 성별을 파악할 수 없는 신원불상의 경우를 제외하고, 2019년을 기준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전체 검거 인원 중 남성은 94.8%,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전체 검거 인원 중 남성은 94.2%로 나타난다.

한편, [표2]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센터의 보고에 따르면, 2019년에 해당 기관이 지원한 1936명의 피해자 중 여성은 87.6%로 나타난다. 또한, 피해자가 연령을 직접 밝히지 않은 경우(48%)를 제외하고는 같은 해에 20대 피해자가 24.8%, 10대 피해자가 12.4%에 달해 실질적으로 10대-20대 여성 집단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 검거 추이 (경찰, 2015-2019)

(단위 : 건, 명)

연도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검거		검거인원성별			검거		검거인원성별		
	건수	인원	여성	남성	불상	건수	인원	여성	남성	불상
2015	7,430	3,959	92	3,832	35	1,065	1,065	38	979	48
2016	4,891	4,491	117	4,340	34	1,041	1,163	58	1,062	43
2017	6,220	5,437	166	5,174	97	1,142	1,324	73	1,186	65
2018	5,613	5,495	188	5,108	199	1,218	1,581	87	1,330	164
2019	5,442	5,558	278	5,108	172	1,224	1,590	81	1,323	186

* 출처 : 경찰청 경찰범죄통계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표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성별 및 연령 현황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8-2019)

(단위: 명)

구분		합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미상
2018	여성	1,106 (100%)	95 (8.6%)	218 (19.7%)	98 (8.9%)	18 (1.6%)	20 (1.8%)	657 (59.4%)
	남성	209 (100%)	16 (7.7%)	33 (15.8%)	11 (5.3%)	16 (7.7%)	5 (2.4%)	128 (61.2%)
	소계	1,315 (100%)	111 (8.4%)	251 (19.1%)	109 (8.3%)	34 (2.6%)	25 (1.9%)	785 (59.7%)
2019	여성	1,695 (100%)	258 (15.2%)	438 (25.8%)	142 (8.4%)	30 (1.8%)	20 (1.2%)	807 (47.6%)
	남성	241 (100%)	33 (13.7%)	41 (17.0%)	18 (7.5%)	17 (7.1%)	10 (4.1%)	122 (50.6%)
	소계	1,936 (100%)	291 (15.0%)	479 (24.8%)	160 (8.3%)	47 (2.4%)	30 (1.5%)	929 (48.0%)
합계		3,251 (100%)	402 (12.4%)	730 (22.5%)	269 (8.3%)	81 (2.5%)	55 (1.7%)	1,714 (52.7%)

* 출처 : 여성가족부 2019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보고서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정보의 유출과 피해촬영물의 유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는 특성으로 인해 관련 기관의 초기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 [표3]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센터의 보고에 따르면, 2019년 전체 피해 건수 3천 368건 중 유포 피해가 1,001건(29.7%)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촬영이 875건(26.0%), 유포불안이 414건(12.3%)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표4]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센터의 보고에 따르면, 2018-2019년 전체 삭제지원 건수 중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는 각각 23.2%, 23.8%에 달했으며 성명(73.6%), 소속(12.9%), 나이(9.8%) 순으로 피해자의 신원이 특정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가 온라인 상에서 유포되고 피해촬영물이 게시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함께 기재되어 왔음을 시사한다.

[표3] 디지털성범죄 피해 유형별 현황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8-2019)

(단위: 건)

구분	합계	유포	불법 촬영	유포 협박	유포 불안	사진 합성	사이버 괴롭힘	몸캠 및 해킹	기타
2018	2,289 (100%)	758 (33.1%)	656 (28.7%)	208 (9.1%)	216 (9.4%)	69 (3.0%)	108 (4.7%)	31 (1.4%)	243 (10.6%)
2019	3,368 (100%)	1,001 (29.7%)	875 (26.0%)	289 (8.6%)	414 (12.3%)	134 (4.0%)	218 (6.5%)	47 (1.3%)	390 (11.6%)
합계	5,657 (100%)	1,759 (31.1%)	1,531 (27.1%)	497 (8.8%)	630 (11.1%)	203 (3.6%)	326 (5.8%)	78 (1.3%)	633 (11.2%)

- 기타 : 스토킹, 성폭력, 데이터폭력 등 기타 폭력

* 출처 : 여성가족부 2019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보고서

[표4] 디지털성범죄 피해시 개인정보 유출 현황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8-2019)

(단위: 건)

구분	삭제 지원	개인정보 유출					
		합계	성명	주소	나이	소속	전화번호
2018	28,879 (100%)	6,700 (23.2%)	4,793 (71.5%)	622 (9.3%)	546 (8.1%)	533 (8.0%)	206 (3.1%)
2019	90,338 (100%)	21,514 (23.8%)	15,816 (73.6%)	763 (3.5%)	2,116 (9.8%)	2,773 (12.9%)	46 (0.2%)
합계	119,217 (100%)	28,214 (23.7%)	20,609 (73.1%)	1,385 (4.9%)	2,662 (9.4%)	3,306 (11.7%)	252 (0.9%)

- 합계 내 괄호는 전체 삭제지원 건수 대비 비율
- 성명, 주소, 나이, 소속, 전화번호의 비율은 합계를 100%로 상정했을 때의 수치

* 출처 : 여성가족부 2019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보고서

나.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 현황

서울시는 2017년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공공영역에서의 피해자 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피해자 직접 지원(피해촬영물 삭제 및 심리 치료 지원) 및 피해 통계를 전국 최초로 구축하였다. 또한, 2018년에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전국 최초로 피해촬영물 유통 실태를 모니터링 하고, 피해 특성 및 피해자 관점에 입각한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서울시는 2019년 서울지방경찰청, 서울특별시 교육청, 전국성폭력 상담소 협의회, 한국성평등상담소협의회 등 4개 단체가 함께 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종합 지원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마련된 디지털 성범죄 대응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가 <온 서울 세이프 On Safe Seoul>와 <찾아가는 지지동반자>이다.

<온 서울 세이프 On Safe Seoul>는 서울시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플랫폼으로, '아이두(IDOO) 캠페인'과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 등의 시민참여형 프로젝트를 병행하고 있다. <찾아가는 지지동반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구제 지원서비스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지원하기 위해 2020년 9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하였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접수 이후 채증, 고소장 작성, 경찰서 진술지원 및 법률·소송지원 등 전 과정과 심리치료 등 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지동반자'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지동반자를 통한 온·오프라인 상담 지원- 경찰 수사동행, 법률, 의료지원, 심리치료 연계- 지지동반자를 중심으로 한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디지털 민주시민 참여 온라인 안심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 운영- 일상생활의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신고- 포털, SNS 등 기업 신고 정책 및 시스템 모니터링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IDOO 캠페인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주도형 캠페인을 통한 시민 인식 개선- 기업 협력을 통한 온라인 안심환경 조성- 다양한 분야 아티스트 참여를 통한 캠페인 확산	 온라인 플랫폼 '온 서울 세이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온라인 플랫폼 운영-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종합정보, 온라인 상담- 디지털 민주시민 온라인 교육 및 활동기반 제공

[그림1] <온 서울 세이프 On Safe Seoul> 사업 소개



[그림2] 서울시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 디지털 성범죄 유형별 피해지원(19.10~'20.8)

서울시는 2020년 10월부터 <온 서울 세이프 On Safe Seoul>에서 카카오톡 익명 신고·상담창구인 <도담별>을 신설하였다. 디지털 성범죄, 성폭력, 성착취 피해에 대한 신고 및 익명 상담을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어 디지털 성범죄의 주요 피해자군인 10대-20대를 상대로 한 접근성을 높였다.

도담별은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폭력·성착취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아웃리치, 맞춤형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조기개입하고 심리적 지지기반을 형성하는 조기개입 및 재피해 예방에 목적을 둔 사업이다.



[그림3] 도담별 사업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신고 및 상담)

한편, 서울시는 2021년을 맞이하여 디지털 성범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신고하는 '디지털 성범죄 시민 모니터링단'을 1천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도담별'에서는 온라인 아웃리치를 강화하여 조기개입 및 예방하고자 한다. 또한, '찾아가는 지지동반자'에서는 예방교육부터 피해자 상담 및 의료·법률지원까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통합하고 체계화할 예정이다.

2. 트위터 내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계정 모니터링 및 신고 개요

가. 모니터링 및 신고 프로세스 설계

본 사업은 디지털 성범죄의 창구로 SNS가 활용되는 상황에서 가해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확장세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SNS 잠입 모니터링과 SNS 내 가해자 계정 신고를 실시하였다.

1) SNS 등 잠입 모니터링 : SNS를 통해 일어나는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 판매, 지인능욕 합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가해자를 신고하기 위해 구입을 원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SNS 등에서 판매하는 계정과 온라인 상에서 대화 시도

2) SNS 내 가해자 계정 신고 : SNS를 통해 일어나는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 판매, 지인능욕 합성, 성착취 제안 등의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계정을 SNS(트위터) 내부 신고하여, 신고 처리 결과 모니터링

특히, 여러 SNS 플랫폼 중 트위터에서는 해시태그(#) 형태의 키워드와 함께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특정된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과 지인 능욕 합성물이 다수 게시되고 있었다. [표6]과 같이 모니터링 주요 키워드를 설정하여 모니터링단이 6개월 간 트위터 내 신고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본 사업에서는 SNS 내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계정 모니터링 및 신고 프로세스를 다음과 같이 구축하였다.

[표5] 트위터 내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계정 모니터링 및 신고 프로세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트위터(플랫폼) 로그인	키워드 검색 (#해시태그)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계정 여부 판단	트위터 내부 신고 및 계정 삭제 요청	트위터 내부 신고 처리 결과 모니터링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신고 접수 또는 가해자 고발

[표6] 트위터 내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계정 모니터링 주요 키워드(#)

키워드	의미
#지인능욕, #합성, #아해가오	피해자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합성하고,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함께 게시하여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게시글임을 암시
#박제, #지인	피해자의 신상정보(성명, 지역, 연령, 소속 등)가 명시되었음을 암시
#고딩, #18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암시
#자영, #영상교환, #영상거래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 및 지인능욕 합성물 유통, 거래, 판매 암시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과 지인 능욕 합성물을 게시하는 계정의 정지 및 차단과 게시글 삭제 요청을 트위터 플랫폼 내 신고센터에 접수하고 이후 처리 여부를 확인하였다. 처리 여부를 확인한 결과, 계정 정지 및 삭제 조치 등까지는 3개월 이상 소요되고, 신고 처리 결과에 대한 프로세스가 부재하여 신고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 수 없었으며,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 계정에는 변화가 없어 이후에 모니터링 했을 때 중복 신고 여부를 알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트위터 내 디지털 성범죄 사건 처리

2020년 8월~2021년 2월 6개월간 트위터 내에서 진행된 모니터링 신고 건수는 총 1,909건이었으며 자세한 내용 및 신고 유형은 다음 [표7]과 같다.

[표 7] 모니터링 월별 신고 통계 및 신고 유형

년월	신고건수		신고유형				신고내용				
	내부 신고	경찰 신고	텍스트	이미지	영상	기타	불법 촬영물	불법성 영상물	아동 성착취	지인 능욕	기타
2020.10	156	19	148	79	27	0	10	49	49	102	13
2020.11	300	0	233	153	86	17	27	47	60	103	87
2020.12	627	0	428	237	136	0	70	118	41	407	45
2021.01	519	0	277	314	94	0	59	87	23	379	51
2021.02	288	0	180	162	28	0	12	13	24	240	49
총합	1,890	19	1,266	945	371	17	178	314	197	1,231	245
	1,909		2,599				2,165				

신고내용의 기준은 사이버수사대 신고 기준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으며, 디지털성범죄 가해 유형 중 '지인능욕'이 1,231건으로 가장 많이 신고하였다. 최근 SNS 내에서 피해자의 얼굴 사진, 신상정보를 함께 게시하며 능욕글을 작성하는 가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가장 많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촬영물, 불법성영상물, 아동성착취의 경우 대다수가 영상물을 배포, 판매한다고 영상물을 가지고 있는 폴더 사진을 인증하거나 게시하는 경우로 총 689건으로 나타난다.

트위터의 경우 약 6개월 간 총 1,890건을 신고하였으나 신고 결과에 대해 회신한 건수는 57건으로 회신률이 3%밖에 되지 않았다. 내부신고 게시글 중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경우를 신고하면 바로 삭제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개인정보의 범위가 협소하였다. 피해자의 사진, 이름, 지역을 게시한 지인능욕의 경우에는 삭제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로 나타났다. 계정중지, 계정삭제, 운영원칙 위반 등 가해자 계정에 대한 제재조치의 기준이 모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8] 가해자 추적 신고 회신 건(58건)

	계정중지	계정삭제	운영원칙위반	사이버팀 (내사종결)	합계
건	27	25	5	1	58

다. 디지털성범죄 가해자 고발

본 사업에서는 가해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범죄 초기부터 처벌하기 위해 사이버수사대 신고 및 고발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1) 사이버수사대 신고 및 고발장 접수 절차

사업 초기에는 모니터링단이 각각 개별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였다. 개별로 신고한 사이버수사대 1건은 각하처분을 받아 처분통지서가 우편으로 전달되었고 1명의 모니터링 활동가가 신고한 17건에 대해서 관할 경찰서에서 모니터링 활동가가 참고인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모니터링단과 의논한 결과, 단체의 활동의 일환으로 신고하는 것이며, 모니터링단 개인의 사정도 있어 개별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월례회의를 통해 사이버수사대를 신고하고 하지 않고 고발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진행하였다.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한 건수는 17건으로 고발 건수와 중복된 건수를 제외하고 2020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6개월간 고발한 건은 총 50건이며, 실인원은 49명으로 나타났다. 고발은 담당 변호사 2인을 통해 고발작 작성 및 자문을 구해 고발장을 작성하였다. 고발장을 작성한 후 본 기관의 관할 지역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2) 고발 현황 및 적용 법률

고발한 사례들을 분석하면, 가해 종류는 지인합성, 지인능욕/박제, 얼싸¹⁾,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성착취물 판매 및 교환, 성착취물 구매, 연예인 합성/능욕, 아동·청소년 협박, 불법촬영, 음란물 배포 총 9개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9] 디지털 성범죄 고발 가해 유형

가해 행위	지인 합성 / 연예인 합성	지인능욕/박제	성착취물 판매/교환/구매	얼싸	협박	불법 촬영	음란물 배포	합계
가해자 명수	18	11	17	1	1	1	1	50

고발한 법령은 총 11개로 가해 행위를 최대한 처벌할 수 있도록 범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법률은 모두 적용하려고 노력하였다. 트위터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경우, 범죄가 실행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많아 최대한 수사를 통해 밝힐 수 있도록 추가 피해 등 일어날 수 있는 피해 상황들에 대해 서술하고자 하며, 해당 가해자가 다른 사람과 트윗을 주고받거나 인증사진을 올리는 등의 행위를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범죄의 실행여부를 알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주로 적용한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4조 2(허위영상을 등의 반포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및 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이었음.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1) 얼싸는 얼굴 사정의 줄임말로 트위터를 통한 가해 행위로써의 얼싸의 경우, 피해자나 연예인의 얼굴 사진을 모니터에 띄워놓고 자위하여 얼굴 사진에 사정한 정액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행위를 뜻함. 얼싸 합성의 경우 피해자의 얼굴사진에 정액과 비슷한 모양을 합성하는 것을 말함.

[표 10] 디지털 성범죄 고발 적용 법조

해당 법률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정보통신망법 제44조 7
적용 횟수	29	24	27	47

*법률 약칭으로 작성함.

가해 행위 중 능욕글이라고 하여 피해자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작성한 경우나 성기, 나체 사진, 영상을 인증사진 등을 게시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적용하였다.

가해 행위 중 '아해가오'라고 하여 눈을 뒤집은 것 같이 합성한 사진과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나체 등을 합성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을 적용하였다.

가해 행위 중 아동·청소년의 뜻하는 해시태그나 영상 인증사진에서 아동·청소년의 언급이 있는 성착취물 판매, 교환, 구매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및 5항(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 배포 등)을 적용하였다.

가해 행위들은 범죄행위 및 음란한 문언, 화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불법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위반한다고 판단된다. 정보통신망법은 성폭력·성착취 범죄가 일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가장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법률로 총 47개의 사례에 적용하였다.

그 외에도 고발 사례에 따라 다양한 법률을 적용하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 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제307조(명예훼손), 제311조(모욕),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를 적용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1] 디지털 성범죄 고발 적용 법조

해당 법률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성폭력처벌법 제 14 조 3	형법 제245조	형법 제307조	형법 제311조	아동복지법 제17조
적용 횟수	6	1	1	2	2	5

*법률 약칭으로 작성함.

가해 행위 중 불법촬영을 한 것으로 보이거나 게시글에 작성한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적용하였다.

가해 행위 중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올려놓고 연락하도록 협박한 경우에는 제14조의 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를 적용하였다.

가해 행위 중 성기사진과 함께 얼싸 사진을 올린 경우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을 적용하였음. 공연음란죄의 경우 다수를 대상으로 오프라인을 통해 일어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에만 적용하였다. 이후에는 온라인을 통해 일어나는 행위로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적용하였다.

가해 행위 중 연예인을 대상으로 합성한 경우에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을 적용하였다.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행위가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능욕글은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워 연예인 대상 합성만 적용할 수 있었다.

가해 행위 중 지인을 대상으로 능욕글을 작성한 경우에 「형법」 제311조(모욕)을 적용하였다.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 본인이 신고하여야 요건이 있어 초기에 적용하고 이후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3) 고발장 접수 과정에서의 한계 및 시사점

가해자 개별로 각 고발장을 작성하였으나, 총 3회 나누어 50건의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이에, 고발장 접수 후 2회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였다. 고발장은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제출하고 참고인 조사 진행하였다.

참고인 조사 시 고발한 게시글들만으로는 아동·청소년임을 특정하기 어렵고, 촬영물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의사에 반했다는 명시적인 표시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수사의 어려운 점으로 작용하였다. 성착취물 거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으며, 글을 작성한 것만으로는 실제로 범죄가 일어났는지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증거가 부족하여 수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피해자의 사진과 개인신상 정보를 올리기만 한 '지인능욕'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는 법이 모호하여 사건 진행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하였다.

더불어, 고발한 건들이 모두 트위터에서 일어나고 있어 트위터에 협조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공조수사가 몇 개월씩 걸리며, 라인의 경우에는 답변도 받기 어렵다고 하였다. 트위터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 또는 강력범죄일 경우에는 협조가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으나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협조를 잘 해주지 않는다고 하며 어려움을 이야기하였다.

또한, 사건 수사를 위해서는 법원에 영장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트위터 게시글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기각되는 사건이 많다고 하며 수사의 어려움을 표했으나, 최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렇듯, 디지털성범죄 가해자 추적은 사업 기관 차원에서만 개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지자체 및 관련 부처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며, SNS 트위터의 협조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지인능욕'이나 불법촬영물, 성착취물 유포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에 유포를 막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없이도 사건 수사가 가능해야 한다. 초기부터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전담수사기구가 필요하다.

3. 트위터 내 디지털 성범죄 실태 및 문제점

트위터는 불특정 다수가 간단한 절차만으로도 이용이 가능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가 훨씬 쉽게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트위터 상의 가해자들은 익명성을 가진 계정을 여러 개를 운영하고, 계속해서 변조되는 키워드와 성적으로 합성된 이미지가 결합된 형태로 디지털 성범죄를 행하기 때문에 가해 행위의 완벽한 차단 및 통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기존의 전통적 유형의 성범죄는 행위자와 피해자 간 실제적인 물리적 접촉을 동반하거나 폭행이나 협박 등의 강압적인 상황이 결합되는 형태로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성폭력 범죄의 구성 요건과 수사 및 양형 절차,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은 물리적인 접촉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왔다.

그러나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 공간과 디지털 기술이 결합된 형태로 성폭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전통적 유형의 성범죄와 병행되는 형태로 확대되어 피해의 규모 역시 확장된다. 특히나 디지털 성범죄는 행위자와 피해자 간 실제적인 물리적 접촉을 동반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상당한 모욕과 고통을 수반시키는 동시에 이미지의 유포 및 확산이 쉽게 이루어져 피해자의 자유로운 생활 형성을 침해한다.

이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가 다음의 네 가지 취약점을 가진다고 이야기 된다. 첫

째, 행위자들에게 디지털 성범죄가 불법이자 중범죄라는 인식이 저조하기 때문에 위법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진다. 둘째, 디지털 콘텐츠는 복제나 변형이 자유롭고 온라인 상에 한 번 게시되면 반영구적으로 기록되는 동시에 유포 및 확산의 정도가 커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범위 역시 무한대로 확대된다. 셋째,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는 플랫폼은 익명성이 높고 수사 및 단속이 어려워 증거 수집이 쉽지 않고 범죄 은폐 역시 수월하다. 넷째,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을 겨냥한 범죄가 손쉽게 이뤄지나 확인되기 어려운 반면, 성인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는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겨진다(김정혜, 2020).

이와 함께 디지털 피해자들은 성적 이미지가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것에 대한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는 복제 및 변형, 유포가 용이하기 때문에 성적인 의미가 없어 보이는 일상적인 이미지도 얼마든지 성적인 이미지로 새롭게 가공되거나 소비될 수 있다.

트위터에 한 번 디지털 콘텐츠가 생성되어 게시되면 항구적으로 온라인에 기록 및 저장되고, 추가적인 변형이 이뤄질 수 있기에 합성된 성적 이미지나 불법 촬영물 등이 온라인 상에서 유포되는 상황을 사전에 완벽히 차단하기가 어렵다. 또한 트위터에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 게시글이 업로드될 때에 해시태그 등의 키워드가 함께 나열되는데 키워드는 계속해서 다른 형태로 변경되거나 다른 용어로 대체되기 때문에 키워드만으로도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트위터를 비롯한 SNS 플랫폼이 해외 서버라는 이유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개입과 수사를 소극적으로 하게 될 때, 피해자의 불안 피해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고 합성된 성적 이미지나 피해 촬영물의 재유포 가능성만이 증가한다.

트위터 내 디지털 성범죄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① 지인능욕형 사진 합성 및 딥페이크, ② 불법 촬영물 게시 및 불법 성영상물 유통,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통 및 성착취 제안으로 구분될 수 있다. 트위터 내에서 불법촬영물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의 게시 및 유통이 결합된 형태로도 가해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형의 ②와 ③은 완전한 분리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① 지인능욕형 사진 합성 및 딥페이크, ② 불법촬영물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구분하여 트위터 내 디지털 성범죄의 실태를 살펴보자 한다.

가. 트위터 내 디지털 성범죄의 주요 유형 및 실태

1) 지인능욕형 사진 합성 및 딥페이크

지인능욕형 사진 합성 및 딥페이크 가해행위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17년 하반기에 실시한 '음란·성매매 정보 중점 모니터링'에서 적발한 사례 494건에 대한 접속차단 내용을 보면, 지인능욕·합성이 291건으로 가장 많았다(한승곤, 2018). 이러한 경향성은 본 사업의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난다.

2020년 10월부터 2021년 2월까지의 가해자 계정 신고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신고 건수 2,165건 중 지인 능욕이 1231건으로 전체의 56.8%에 달한다. 즉, 트위터 내에서 이미지 기반의 성착취가 만연하게 반복되고 있는 한편, 가해 유형의 상당 부분이 <지인능욕형 사진 합성 및 딥페이크>로 수렴되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아래의 표 참고).

트위터 상에서 지인능욕 형태의 성적 이미지 합성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한편, 가해자 중심의 시각과 언어 사용을 경계하기 위해서는 '능욕'보다는 '성적 모욕'으로 표현되는 것이 적절하다. '능욕'의 사전적 의미는 여자를 강간하여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하거나 남을 업신여겨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 행위자의 가해를 부각하거나 문제화하기보다는 피해자의 수치와 굴욕감을 전제하고 있기에 용어 정정이 필요하다.

[표 12] 가해자 계정 신고 통계(2020년 10월~2021년 2월)

년월	신고내용(건수)				
	불법촬영물	불법성영상물	아동성착취	지인능욕	기타
2020.10	10	49	49	102	13
2020.11	27	47	60	103	87
2020.12	70	118	41	407	45
2021.01	59	87	23	379	51
2021.02	12	13	24	240	49
총합	178	314	197	1,231	245
			2,165		

이렇듯,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디지털 성범죄 유형은 '지인능욕형 사진 합성'과 '딥페이크'에 따른 성적인 이미지의 게시로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2에 의거해 '허위 영상물'로 규정된 형태이다.

이 경우 성적 모욕에 해당하는 언어적 괴롭힘을 필연적으로 동반한다. 성적인 의미가 없던 촬영물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복제, 변형, 도용되어 피해촬영물로 소비되기도 하고, 성적으로 합성된 이미지에 이름, 나이, 소속, 전화번호, 소셜미디어 계정, 거주지 등의 개인정보가 함께 게시되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는 피해당사자로 하여금 성적 불쾌감을 느끼도록 종용하는 장치이자 엄연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공간의 특성상 피해 범위가 무작위로 확산하는 문제를 지닌다. 이러한 정보들을 종합하여 얼마든지 온라인 스토킹 및 기타 범죄로 연동될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하여 관련 행위에 대한 조기 개입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지인능욕형 사진 합성'이란 소셜미디어나 메신저 프로필 등에서 무단으로 피해자의 사진을 가져와 성적 이미지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이다. 이는 크게 '아해가오' 합성, 나체 합성, 얼싸 합성, 남성기 합성, 투시 합성이 있다.

'아해가오' 합성이란 성적 모욕을 주기 위한 의도로 피해자가 눈을 희멀건하게 뜨고 입을 벌리고 혀를 내밀고 체액을 흘리는 형태로 이미지를 변형하는 것을 의미한다. 트위터에서 이와 관련해 주로 사용되는 해시태그 키워드는 '#아해가오, #아해가오합성, #ㅇㅎㄱㅇ'이다.

나체 합성이란 피해자의 얼굴에 성행위, 유사성행위 장면(피해촬영물이 이미지로 활용되기도 함)을 합성하는 것을 말한다.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합성 범죄의 경우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얼싸 합성이란 '얼굴에 사정' 또는 '얼굴에 싸다'의 줄임말로 주로 얼굴에 정액을 뒤집어쓴 것 같이 합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트위터에서 이와 관련해 주로 사용되는 해시태그 키워드는 '#얼굴사정 (#얼싸, #ㅇㅆ), #지인얼싸 (#ㅈㅇㅇㅆ), #얼싸합성 (#ㅇㅆㅎㅅ), #연예인얼싸, #아ㅇ_|돌얼싸, #정액'을 사용한다.

남성기 합성이란 성적으로 변형된 이미지에 남성기를 가져다 대고 실제로 사정하는 것처럼 합성하는 경우이다. 트위터에서 이와 관련해 주로 사용되는 해시태그 키워드는 '#자지울리기'로 남성기 합성의 경우 위의 얼싸 합성과 결합되어 트위터에 게시되는 경우가 잦다. 특히 다른 유형들이 이미지와 텍스트가 결합된 형태로 게시된다면, 남성기 합성은 성적으로 합성된 이미지에 정액과 남성기가 함께 노출되는 영상 형식으로 게시되고 있다.

투시 합성이란 옷을 투과하여 가슴, 성기 등의 특정 부위가 노출된 것처럼 합성하는 것을 말한다. 트위터에서 이와 관련해 주로 사용되는 해시태그 키워드는 '#투시'를 사용한다.

‘딥페이크(Deepfake)’란 인공지능(AI) 기술인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음성을 변조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포르노, AV 등 성적 촬영물에 합성하여 만들어낸 피해촬영물이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손쉽게 제작이 가능하고 필터링과 완전한 삭제가 어려워 피해가 지속되는 문제를 가진다(배상균, 2019).

[그림 4] 지인능욕형 사진 합성 및 딥페이크 가해 사례 1

Figure 4 displays three screenshots of Twitter posts related to AI manipulation. The first post, from a user with a blue profile picture, reads: "지인능욕, 지인얼싸 해드립니다~ 얼싸 받고 싶은 개걸래년들이나 얼싸 당한거 보고싶은 지인년들 사진 보내주세요~~ 본인도 신청 받아요 #지인 #능욕 #얼싸 #지인능욕 #지인 합성 #지인얼싸 #지인합성 #룸한 #얼싸합성 #지인능욕합성 #ㅈㅇ #ㅈㅇㄴㅇ #ㅈㅇㅇㅅ #ㅈㅇㅂㅈ #ㅇㅆ #ㅈㅇㅇㅆ #ㅇㅆㅇㅅ". The second post, from a user with a blue profile picture, reads: "무료 공인, 지인능욕 합성 방 들어가고 싶다면 디엠 주셔 빠른답 가능! #지인능욕 #지인합성 #지인얼싸 #지인룸싸 #합성 #얼싸 #룸싸 #고퀄 #ㅈㅇㄴㅇ #ㅇㅆ #ㅁㅆ #아헤가오 #ㅇㅎㄱㅇ #ㅈㅇㅇㅅㅅ #ㅈㅅㅅ #지인 #ㅈㅇ #지능 #ㅈㄴ #디엠 #ㄷㅇ #선착순 #비밀보장 #활동굿 #테스트 #딥페이크 #투시가능". The third post, from a user with a blue profile picture, reads: "#박제 #지인 #지인박제 #지인능욕? 남녀 상관없이 지인에 대한 제보 해주시면 박제해드릴게여 *이름/나이/사진* 제보자와의 관계*". All posts are from 2020년 11월 10일, 12일, and 5일.

위 사례들의 경우 변조 가능한 해시태그 키워드를 통해 지인능욕형 사진 합성 가해를 암시하고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해시태그 키워드들은 대체로 축약어의 형태를 동반한다.

“공인, 지인능욕 합성 방 들어가고 싶다면 디엠 주셔”라는 표현에서 합성된 성적 이미지들이 폐쇄적인 공간에서 거래 및 유통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가해자들은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이름, 나이, 사진, 제보자와의 관계, 거주지 등의 정보를 요청하고, 이후 성적으로 합성된 이미지들과 해당 정보들을 함께 나열함으로써 모욕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그림 5] 지인능욕형 사진 합성 및 딥페이크 가해 사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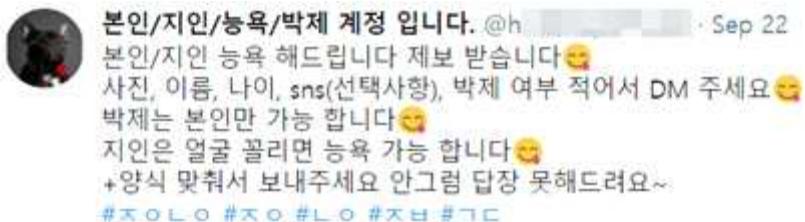
위 사례의 경우 성적인 의미를 담은 해시태그를 여러 개 기술하여 게시물의 접근성과 공연성을 높였다. 피해자의 실명, 거주지, 연령, 신원확인 특정이 가능한 얼굴 사진이 노출되어 개인정보가 함께 게시된다.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보를 쉽게 취득 가능한 피해자의 지인일 경우를 유추해볼 수 있다. 또한 사이버명예훼손 및 성적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들과 성범죄를 유도하는 내용들로 게시글이 구성되어 '지인능욕'의 전형적인 사례로 분류된다.

[그림 6] 지인능욕형 사진 합성 및 딥페이크 가해 사례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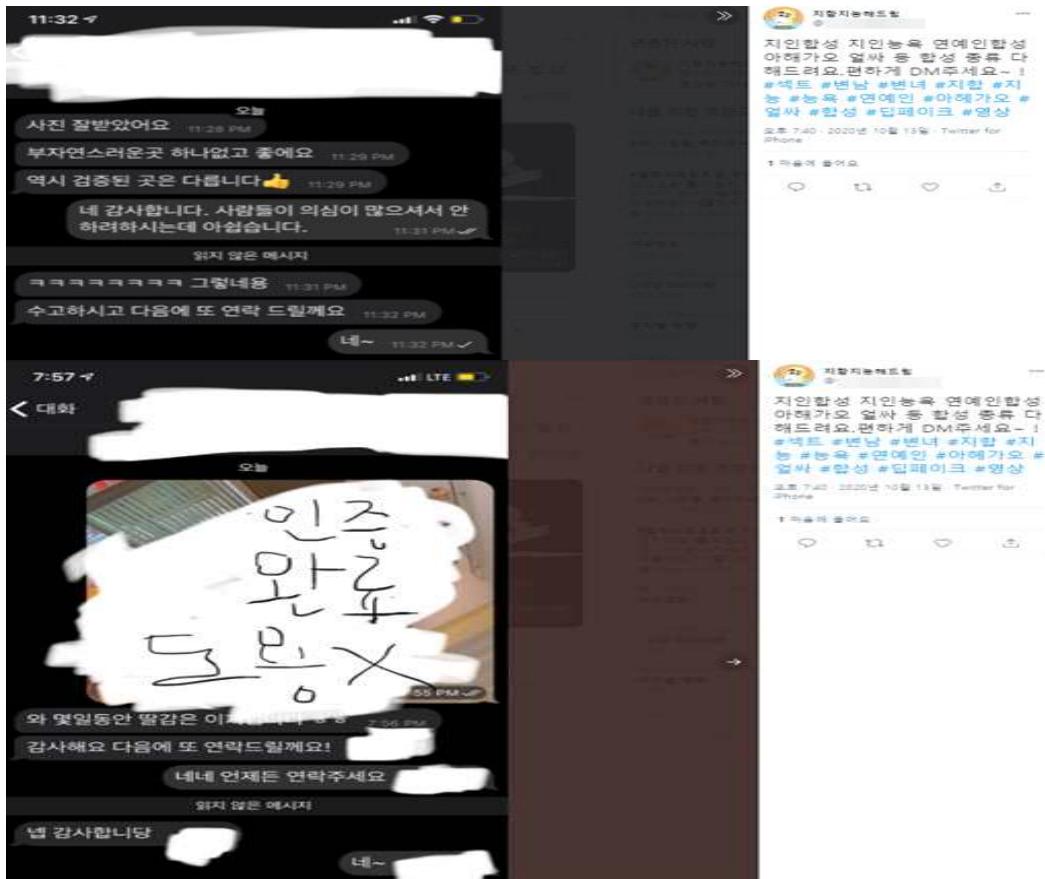
트위터 내 지인합성 가해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나는 비당사자(타인)에게 '제보'나 '신청'을 받아 지인합성이 이루어지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본인이 직접 자신의 성적 이미지와 기타 정보들을 온라인 상에 영구적으로 기록해 달라고 요청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후자의 경우 트위터 내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가담하거나 일종의 소비자로서 기능하고 있는 이용자들로 하여금 현장성과 몰입도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 위 사례와 같이 트위터에 기재된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더욱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것으로 보이게 하고, 당사자의 신체 일부를 특정한 사진을 함께 게시하는 형태로 가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이미지를 역시 복제되거나 변형된 것일 수 있고 타인이 도용하여 사기 치는 경우일 수 있다.

[그림 7] 지인능욕형 사진 합성 및 딥페이크 가해 사례 4



트위터 내 지인합성 가해 사례 중에는, '본인 박제'라는 카테고리가 존재한다. 이는 대부분의 지인합성들이 타인의 제보나 신청의 형태로 이뤄지는 반면, 당사자가 직접 성적으로 모욕당할 것을 희망했고 그에 따라 온라인 상에 개인정보가 반영구적으로 기록되는 것을 요청했는가의 여부로 구분된다. 그러나 신청자가 당사자인지의 진위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이를 고려하면 누군가를 성적으로 모욕하겠다는 특정한 의도를 가진 제3자가 당사자로 위장하여 '본인 박제'를 신청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기에,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또한, '당사자가 희망했다'는 것으로 가해 행위가 면책될 수는 없다.

[그림 8] 지인능욕형 사진 합성 및 딥페이크 가해 사례 5



성매매 후기사이트가 범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 사례와 같이 트위터 내에서 성적으로 합성된 이미지를 거래하거나 교환한 이후 후기글이 함께 게시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후기의 내용들은 '진짜 같음'과 '성적으로 매우 자극적임'의 두 요소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적 이미지의 사실성을 강화하고, 동시에 해당 행위가 엄연한 '성범죄'라는 인식을 희석시키고 있다.

트위터 내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판매자로서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추가적인 범행을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그림 9] 지인능욕형 사진 합성 및 딥페이크 가해 사례 6



지인합성 및 딥페이크 가해 행위는 타인에게 합성을 요청받거나 당사자의 자원을 받는 모양새로 실행된다. 그러나 당사자를 자처하는 이가 실제 당사자와 동일인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위의 사례와 같이 트위터에서는 자체 메신저인 DM 기능을 통해 지인합성 및 딥페이크 가해 행위가 주로 시도되며, 경우에 따라 트위터의 DM 기능 외의 라인 등의 추가적인 SNS 메신저 아이디를 게시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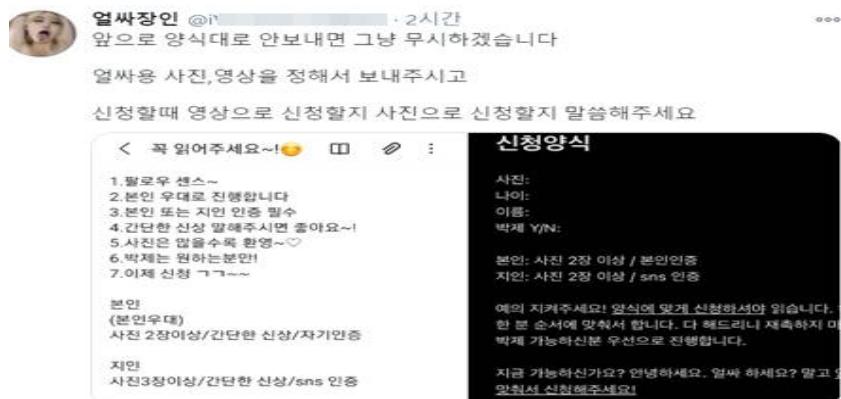
'생활관리'는 성적으로 지배당하면서 일상을 통제받는 것을 의미하며, '조련', '가축', '암캐', '팸섭', '멜돔', '변녀', '육변기', '암캐' 등과 같이 성적인 모욕감과 복종감이 동반되는 행위를 연상하는 키워드이다. 이처럼 지배 및 피지배 관계를 암시하는 키워드를 복수로 나열할 때 게시글에 성적으로 극화된 이미지가 부여되어, 지인합성 및 딥페이크 가해 행위가 더욱 자극적인 소재로 쓰이게 된다.

지인합성 및 딥페이크 가해 과정에서 얼굴이 드러나는 이미지와 개인정보와 관련한 텍스트는 필연적으로 동반된다. 또한 보안을 강화하고 게시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인을 자처한 타인이 합성을 요청하는 경우엔 SNS를 통해 인증 절차를 거치고 당사자를 자처한 개인이 합성을 신청하는 경우엔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여성의 얼굴에 사정을 하거나 사정을 한 사진이 제작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흡사 판매되는 상품에 대한 평가 양식과 유사하다. 다른 점은 일반적인 상품 후기글이 주로 구매자의 이름과 간단한 신상정보(옷의 경우라면 체형), 사진,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면,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한 게시글은 피해자(또는 피해자로 유추되는 이)의 이름과 간단한 신상정보(체형, 소속, 연락처, SNS 계정, 거주지 등), 사진, 성적으로 모욕적인 평가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다.

또한, 지인합성 및 딥페이크를 신청받거나 거래를 유도하는 게시글과 댓글들에서는 윤리적인 죄의식이나 불법행위에 대한 문제의식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오히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예의가 되곤 하는데, 이것은 '팔로

[그림 10] 지인능욕형 사진 합성 및 딥페이크 가해 사례 7



우 센스~'나 '예의 지켜주세요!'와 같이 상도덕 차원에서만 다루어지고 있다. 즉, 여성의 성적인 이미지가 무분별하게 교환되고 거래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판매자와 거래자 간의 상호 신뢰에 국한되어 있다.

판매자는 이를 통해 상품의 '품질 보증'을 홍보하고, 구매자는 '상품에 대한 만족도'를 기대하는 구도를 형성한다. 즉, 트위터에서 디지털 성범죄는 기술이 매개되어 발생하는 성별화된 폭력이나 착취의 한 유형으로 고려되지 않고 여성에 대한 성착취와 성적인 소비가 철저히 상업화된 맥락 속에서 형성되고 재생산되고 있다. 이는 트위터 상에서 공공연하게 행해지는 성적인 이미지의 합성들이 본질적으로는 여성에 대한 성착취적 소비와 맞닿아 있음을 시사한다.

2) 불법 촬영물 게시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통

본 사업의 모니터링에서 확인한 바, 트위터 내에서 발견되는 디지털 성범죄 유형 중, 지인합성 및 딥페이크 다음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불법 촬영물 게시 및 불법 성영상을 유통,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통 및 성착취 제안으로 나타났다.

[표 13] 가해자 계정 신고 통계(2020년 10월~2021년 2월)

년월	신고내용(건수)				
	불법촬영물	불법성영상을	아동성착취	지인능욕	기타
2020.10	10	49	49	102	13
2020.11	27	47	60	103	87
2020.12	70	118	41	407	45
2021.01	59	87	23	379	51
2021.02	12	13	24	240	49
총합	178	314	197	1,231	245
			2,165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는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여성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등의 취약 계층에 대한 온라인상의 그루밍과 오프라인상의 위협이 확산되었다.

2020년 12월 신설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에서 아동·청

소년성착취물과 관련한 형량은 타 디지털 성범죄 유형군에 비해 높다. 그러나 여성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등의 취약 계층의 경우 비장애인인 성인 여성에 비해 피해를 인식하거나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이 소요된다. 이로 인해 피해 사실을 아예 인지하지 못하거나 피해구제와 관련한 절차 및 정보에 관한 접근성이 비교적 낮아져 피해가 장기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율규제 요청으로 지난 5년간 구글·트위터·텔레그램·디스코드에서 삭제된 디지털 성범죄물은 전체 8만 6천여건 중 7천 여건으로 약 32%에 불과하다(김보겸, 2020).

십대여성인권센터의 보고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여성 청소년을 겨냥한 해시태그 키워드 #조건만남, #조건, #ㅈㄱ 등이 포함된 게시물을 차단하기까지도 3년이 소요된다(오연서, 김민제, 2020).

해외 플랫폼은 내부 방침으로 불법 게시물에 대한 신고 창구가 마련되어 있지만, 신고가 접수되어도 게시글 삭제나 계정 활동 일시 중단 등의 소극적 조치만을 실행한다. 불법촬영물, 불법성영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플랫폼 상에 게시되었을 때, 플랫폼 자체 알고리즘에 의거하여 게시글이 기술적으로 차단되거나 이미지 및 영상이 열람 불가 상태로 처리되는 장치는 도입되어 있지 않다(김보겸, 2020).

아래와 같이 트위터는 2018년과 2020년 각각 아동청소년 성착취 게시글에 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아동청소년에게 폭력적인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할 경우 계정 사용이 영구적으로 중지되고 신규 계정 생성이 금지된다고 공표하고 있다. (하단 내용 밑줄 참고)

그러나 본 사업의 모니터링 및 신고 결과를 살펴보면, 실제로 계정이 정지되거나 플랫폼으로부터 재제를 받는 경우는 극소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정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어도 계정이 버젓이 활동을 지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게시글 삭제 조치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18년 4월

아동 성 착취 콘텐츠와 싸우는 트위터의 노력

트위터는 아동 성 착취 (CSE, child sexual exploitation)에 대한 무관용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전세계에 걸쳐 미성년자의 성적 착취를 막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플랫폼 내에서 아동 성 착취와 싸우기 위해 매우 적극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동성착취 이미지나 콘텐츠에 연결된 링크가 식별되는 즉시 해당 내용은 제거되며, 미국립실종학대아동센터("NCMEC" 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에 신고됩니다. NCMEC는 미국에 기반을 두고 전세계를 대상으로 활동하는 조직이며, 수만 명의 취약한 착취 아동을 식별하고 구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NCMEC는 전 세계의 법 집행 기관에 보고서를 제공하며, 한국의 법 집행 기관도 포함됩니다. 통상 법 집행 기관은 NCMEC를 통해 수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트위터는 아동 성 착취를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한 법 집행 기관의 노력이 전 세계 아동 성 착취 근절을 위한 노력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위터 상에서 이러한 자료를 홍보하거나 공유하는 계정은 영구적으로 사용이 중지됩니다. 문제가 되는 콘텐츠는 이 신고 양식을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법 집행 기관은 법 집행 기관 요청 양식을 통해 아동 성 착취 게시물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 성 착취 콘텐츠를 신고하는 사용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Microsoft PhotoDNA나 트위터 내 기술을 활용하여 검토가 필요한 계정을 찾고 있습니다. 2017년 하반기에 트위터의 아동 성 착취 정책을 위반해 일시 중지 된 전체 계정의 83%가 이러한 기술을 사용해 사전에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트위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협력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Technology Coalition (온라인 아동 성 착취 근절을 목표로 하는 주요 인터넷 서비스 업체간 모임)과 Thorn의 Technology Task Force(온라인 아동 성범죄자들의 행동을 와해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재단)의 회원입니다.

트위터는 급변하고 있는 인터넷 아동 성 착취를 방지하는 노력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트위터는 앞으로도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문제 해결에 필수적인 기술과 도구에 투자할 것입니다.

(https://blog.twitter.com/ko_kr/topics/company/2018/CSE2018.html, 검색일 : 2021.03.01.)

2020년 10월

트위터에서는 아동 성 착취 행위와 관련하여 무관용 정책을 고수합니다.

트위터는 가장 심각한 트위터 운영원칙 위반 행위 중 하나인 아동 성 착취 행위가 담겨 있거나 이를 조장하는 모든 자료에 대해 무관용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디어, 텍스트, 일러스트레이션, 컴퓨터 생성 이미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의도에 상관 없이, 아동 성 착취 행위가 담긴 자료를 보거나 공유하고 해당 링크를 연결하면 노출된 미성년자의 2차 피해로 이어집니다. 또한 이는 아동 성 착취 조장이나 미화를 통해 아동

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콘텐츠에도 적용됩니다. 이 정책의 목적에 따라, 미성년자는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정책을 위반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아동 성 착취를 묘사 또는 조장하는 콘텐츠로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아동이 성적으로 노골적인 또는 성적 암시를 주는 행동에 참여하는 시각적 표현
- 성적으로 노골적인 상황에 있거나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동에 참여하는 아동을 현실적으로 묘사한 일러스트레이션, 컴퓨터 생성 미디어, 또는 기타 형식의 자료
- 유명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와 관련되거나 이를 대상으로 작성한 성적 코멘터리
- 아동 성 착취 자료를 호스팅하는 제3자 웹사이트로의 연결 링크

다음의 행위 또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아동 성 착취 참여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자료를 공유하는 행위
 - 아동 성 착취를 담은 자료를 입수하려는 욕구를 표현하는 행위
 - 아동이 포함된 상업적 성행위나 성적 목적의 아동 보호 및/또는 윤반을 광고하거나 이에 관심을 표현하는 행위, 또는 관련 인원을 모집하는 행위
 - 아동에게 성적으로 노골적인 미디어를 전송하는 행위
 - 성적으로 노골적인 대화에 아동을 참여시키거나 참여를 유도하는 행위
 - 아동에게서 성적으로 노골적인 미디어를 입수하려는 행위, 또는 인센티브나 위압을 통해 아동을 성행위에 참여시키려는 행위
 - 아동 성 착취의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신원을 이름이나 이미지로 확인하는 행위
- 정체성 또는 성적 지향의 한 형태로 미성년자 대상의 성적 취향을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

이 정책을 위반하지 않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어떤 식으로든 아동 성 착취를 정당화하거나, 조장하거나, 미화하지 않는다면 해당 문제를 사회적 현상으로서 거론하거나 미성년자에 대한 호감을 표현하는 행위는 허용됩니다.

- 미성년자에게 매력을 느껴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사람의 지원 요청 행동과 관련한 대화
- 아동 성 착취가 포함된 자료를 공유하거나 연결하지 않는 한, 미성년자와 관련된 불법적이거나 유해한 활동에 대한 비방 표현
- 성적이지 않은 맥락이나 환경에서 미성년자의 신체 노출이 묘사된 자료는 제한된 제한된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습니다(예: 세계적으로 저명한 예술가의 작품으로서 미성년자를 소재로 삼는 경우, 뉴스 미디어 보도, 과학 또는 교육 목적으로 제작 및 공유된 미디어).

이 정책에 대한 위반 사항은 누가 신고할 수 있나요?

이 정책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는 트위터 계정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에 대한 위반 사항은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아동 성 착취 자료를 배포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트위터 계정을 발견하면 트위터의 아동 성 착취 문제 신고 양식을 사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의심하게 된 모든 관련 트윗의 링크와 사용자 아이디를 함께 보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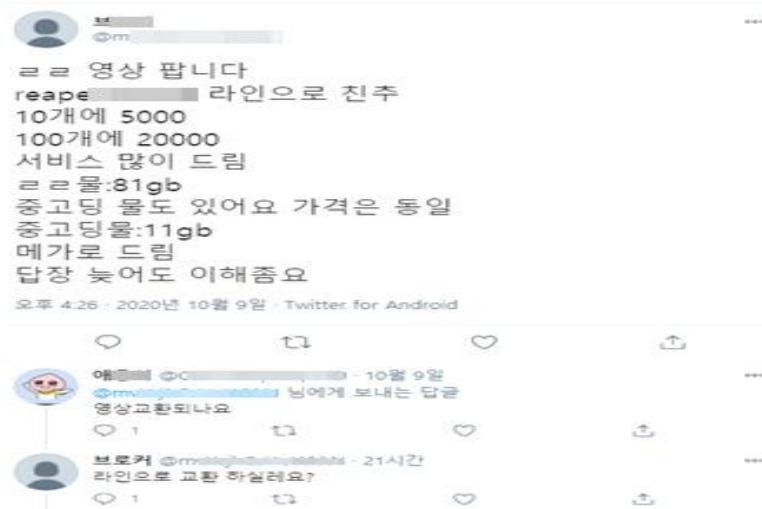
이 정책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의 경우, 트위터의 아동 성 착취 관련 정책을 위반한 계정은 즉시 영구 정지됩니다. 그에 더하여 정책 위반자는 추후 신규 계정 생성 또한 금지됩니다. 참고: 아동 성 착취를 묘사하거나 조장하는 콘텐츠(해당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는 제3자 웹사이트 링크 포함)가 발견되면 별도의 통지 없이 삭제되며 미국 국립실종학대아동센터(NCMEC)에 신고됩니다.

트위터에서는 악의가 확인되지 않은 제한된 몇몇 경우에만 해당 콘텐츠의 삭제를 요청합니다. 해당 사용자는 계정 일시 정지 조치 이후에 다시 트윗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을 계속 위반할 경우에는 계정이 영구 정지됩니다. 본인의 계정이 오류로 정지된 것 같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https://help.twitter.com/ko/rules-and-policies/sexual-exploitation-policy> 검색일 : 2021.03.01.)

[그림 11] 불법 촬영물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통 사례 1



트위터 내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모니터링 결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통 사례는 빈번하게 확인된다. 대표적인 키워드로는 '#로리(#ㄹ느리, #ㄹㄹ)', '#키즈', '#고딩가슴', '#고딩합성', '#고딩' '#18살', '#중딩', '#중고딩물' 등이 있다. '서비스 많이

드림'은 판매자가 구매자들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구매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장치에 해당한다. 'gb'는 성착취물 용량이 기가바이트임을 의미하며, '메가로 드림'은 성착취물 용량이 아닌 공유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거래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메가는 링크만 있으면 영상이나 이미지를 다운받을 수 있다.

해시태그 키워드와 함께 수량과 가격이 기재된다는 점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통에 관한 게시글에 언급된 키워드들은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일종의 마케팅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2] 불법 촬영물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통 사례 2



위 사례의 경우 '인증'이라는 자체적인 보안 절차를 거쳐 성착취물 및 불법영상물이 거래 및 유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트위터 내 '인증'은 DM을 통해 라인 등의 여타 SNS 메신저 플랫폼으로 이동하여 이뤄진다는 점에서 폐쇄성이 높고 단속이 어렵다. 인증 과정에서 문화상품권과 같은 보상 제공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대가성이 발생한다. 한편, 여타 플랫폼으로 이동하여 성착취물 및 불법영상물을 서로 '교환', '구매'하는 거래의 행위도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림 13] 불법 촬영물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통 사례 3



트위터 내 디지털 성범죄에서 #10대, #고딩 등의 해시태그 키워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통 및 성착취 제안 행위를 직접적으로 암시한다. 이에 대한 단속 및 규제를 피하기 위해 키워드를 삭제하고 이미지만으로 성착취 상대가 어린 여성임을 강조하는 게시글들도 다분히 존재하고 있다. 위 사례처럼 교복을 강조하거나 왜소한 체형을 가진 여성의 이미지를 내세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것을 기정사실화시키려고 하나, 실제로 당사자가 아동 청소년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위 사례와 같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할인가 제시' 및 '추가적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행위가 동시에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철저히 디지털 성범죄가 상업화된 여성 착취의 맥락 속에서 실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14] 불법 촬영물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통 사례 4



이 사례의 경우 트위터에서 매우 빈번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불법촬영물, 불법성영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한다. 이러한 게시글들은 지인합성물, 불법촬영물, 불법성영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간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든다는 것이 주요한 특징이다. 게시글 작성자와 이미지의 당사자가 실제로 어떠한 관계인지 확인하기 어려우나 게시글에는 친족 관계인 것처럼 서술되어 있어 불법촬영물임을 알 수 있다.

DM 기능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불법촬영물 및 불법성영상물을 교환, 판매, 거래, 유통한다고 언급하지는 않고 있으나 이런 게시글들의 경우 의도적으로 사실성을 부여함으로써 구매자들의 관심을 끌어 비밀리에 DM을 통해 불법촬영물 및 불법성영상물에 대한 거래를 시도하는 방식으로도 일어난다. 혹은 지인이 사용했던 물품(속옷, 스타킹)의 사진 등을 함께 게시해 판매를 유도하기도 한다.

[그림 15] 불법 촬영물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통 사례 5



'도촬'은 '도둑촬영'의 줄임말로 '불법촬영'의 은어에 해당한다. '불법촬영'이라는 용어가 수사 현장에 자리 잡기 전까지는 '몰래카메라(몰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즉, '도촬'을 키워드로 삼고 있는 트위터 게시물은 '불법촬영물'에 대한 게시, 소지, 거래, 유통 등을 일컫는다. 또한, '도촬'이라는 해시태그 키워드로 불법촬영물임을 암시하는 게시글일지라도 실제로 살펴보면 직접 제작한 불법촬영물이 아닌 타인이 제작한 불법성영상물을 소지 및 재업로드 한 경우도 많이 나타났다.

즉, 트위터에서 확인되는 디지털 성범죄 사례에서 불법촬영물과 불법성영상물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다반사로 일어난다. 더불어, 불법성영상물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조작하여 불법촬영물로 게시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불법촬영물과 불법성영상물이 엄격하게 분리되지 않았다.

'지인 도촬 얼싸 개인정보 드림'에서, 지인을 상대로 한 불법촬영물을 성적으로 재합성한 뒤 개인정보가 담긴 텍스트와 결합하여 거래하는 유통망이 형성되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앞에서 언급된 지인합성 및 딥페이크 가해 행위는 불법촬영물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완전히 분리되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트위터 플랫폼 자체의 문제점

1)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거의 취득하지 않아 익명성이 강함

트위터는 다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들에 비해 성인 인증을 요구하지 않으며 이메일 계정이나 핸드폰 번호만 있다면 이용이 가능하다. 즉, 가입 절차가 매우 간소하여, 많은 경우 개인정보 추적이 가능한 핸드폰 번호보다는 개인정보 기입 없이 등록 가능한 이메일 계정으로 트위터에 가입하고 있다. 다시 말해, 트위터는 다른 플랫폼에 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거의 취득하지 않고 있다.

트위터의 경우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를 많이 필요로 하지 않고 비공개 계정 설정 등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어 이용자의 익명성을 확보하기에 용이하다. 이로 인해 트위터는 타 플랫폼에서의 범죄와 쉽게 연동된다는 특성을 지닌다. 특히나 트위터에는 텔레그램에 합성방을 운영하겠다며 지인능욕 등을 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라인이나 텔레그램처럼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플랫폼의 아이디로 연락하라는 메시지를 남기는 게시물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실태를 통해 DM, 타 플랫폼과의 연동되는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아래 그림 참조).

이러한 점들로 인해 트위터는 1. 지인능욕형 사진 합성 및 딥페이크, 2. 불법 촬영물 게시 및 불법 성영상물 유통, 3.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통 및 성착취 제안이 이루어지는 온상으로 발전하였다.

[그림 16]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영상물 거래 시 트위터 내 DM 기능 활용 사례



위 그림에서 '라인디'는 '라인(LINE) 아이디'의 줄임말로서, 트위터 내 개별 메시지 기능(DM)을 통해서 다른 메신저 플랫폼의 계정 정보를 공유한 뒤 해당 플랫폼으로 이동하여 불법 성영상물을 거래 및 유포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림 17]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영상을 거래 시 트위터 외 타 플랫폼 계정 요청 사례



위 그림처럼 지인능욕형 사진 합성물, 불법 촬영물 및 불법 성영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트위터 내부에서만 단독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트위터는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되는 행위에 관해 정보제공 및 교환·유통·거래의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트위터를 기반으로 하여 라인,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 보안성 및 익명성이 강화된 여타 플랫폼에 초대되고, 초대된 비밀 메시지 공간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 이미지 및 영상에 관한 직접적인 거래가 이루어진다.

2) 해시태그 기능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의 확산

트위터는 여타의 SNS에 비해 해시태그 및 검색기능이 활성화된 플랫폼으로서 불법촬영물 게시 및 지인 합성을 유포에 유리한 지형을 가지고 있다. 해시태그(#) 기능으로 불법촬영물 및 지인합성물에 대한 검색이 용이하며, 해시태그가 병렬되지 않은 검색으로도 충분히 관련 게시물들을 확인할 수 있어 디지털 성범죄에 활용되고 있다. 트위터 내 디지털 성범죄 관련 상위 해시태그 키워드에는 #지인합성, #지인능욕, #지인박제, #영상거래, #영상교환 등이 있고, 이러한 키워드들은 축약어 또는 은어로 처리되는 빈도가 잦게 나타난다.

[표14] 트위터 내 디지털 성범죄 관련 주요 해시태그 키워드

	키워드	유형
1	#지인, #지인합성 (#지합, #ㅈㅇㅎㅅ), #지인능욕 (#지능), #지인박제 (#ㅈㅇㅂㅈ), #딥페이크, #딥페, #합성, #박제, #아ㅇ 돌능욕, #지인능욕방, #아이돌, #연예인	지인능욕 및 사진 합성, 성적 모욕 등의 괴롭힘 및 개인정보 노출
2	#로리(#ㄹㅗㄹி, #ㄹㄹ), #키즈, #고딩가슴, #고딩합성, #고딩, #18살, #중딩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통 및 성착취 제안
3	#아해가오, #아해가오합성, #ㅇㅎㄱㅇ	지인능욕 및 사진 합성, 성적 모욕 등의 괴롭힘 및 개인정보 노출
4	#얼굴사정 (#얼싸, #ㅇㅆ), #지인얼싸 (#ㅈㅇㅇㅆ), #얼싸합성 (#ㅇㅆㅎㅅ), #연예인얼싸, #아ㅇ 돌얼싸, #정액, #자지올리기	지인능욕 및 사진 합성, 성적 모욕 등의 괴롭힘 및 개인정보 노출
5	#조련, #조교, #sm, #노예, #암캐, #발정, #섹스, #주인, #암퇘지, #걸레, #섹트, #변녀, #변남, #섹 트, #변녀, #변남	성적 모욕 등의 괴롭힘 및 개인정보 노출, 불법 성영상물 유통
6	#영상거래, #영상교환, #판매, #선착순, #무료, #분양 (#ㅂㅇ), #자위영상 (#자영, #ㅈㅇ), #영통, #영딸, #맞딸	불법 성영상물 유통

트위터에서는 간단한 키워드 검색만으로 여성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가 가능한 실정이다. 숫자 0을 검색하면 '0X년생 XXX'라는 이름의 수많은 계정들이 확인된다. 또한 '#미성년자', '#10대' 등의 해시태그를 검색해보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를 제안하는 계정이 상당히 많이 운영되고 있다. 이는 트위터·텀블러 등의 사회관계망서비스가 아동·청소년 성착취의 온상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배경에는 지난 2016년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였던 소라넷이 폐지된 뒤 상당수의 이용자들이 트위터·텀블러로 옮겨온 것을 이야기 할 수 있다. 소라넷은 17년 간 국내에서 성매매 알선, '몰카' 및 '리벤지 포르노' 유통, 강간 모의 및 시행 등이 이루어진 사이트였다. 당시 소라넷은 서버가 미국에 있어 폐쇄가 어렵고, 설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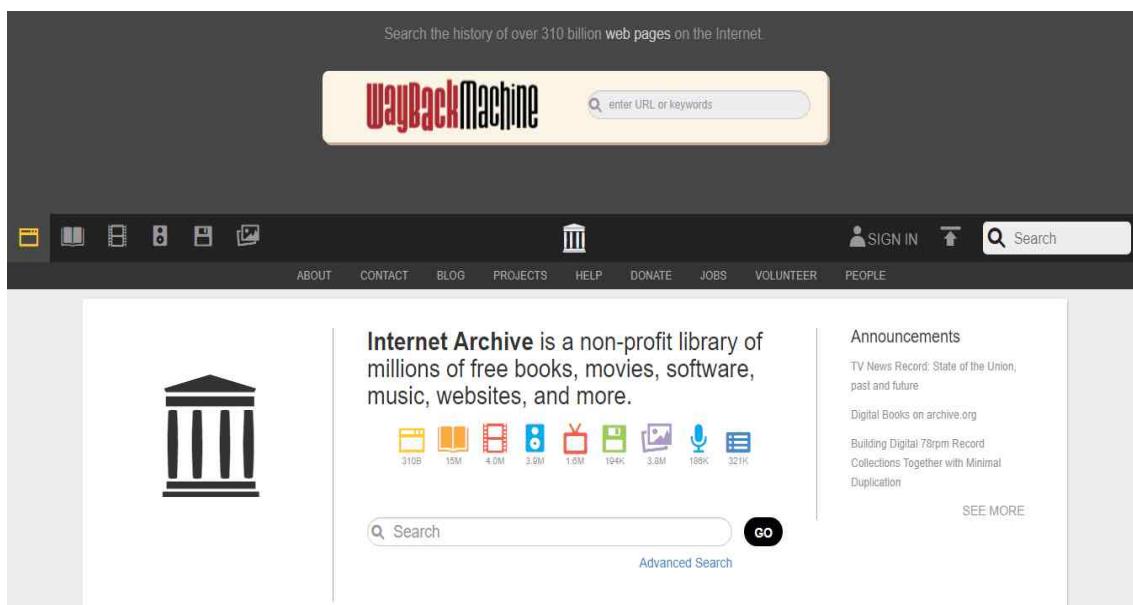
폐쇄된다고 하더라도 트위터를 통해 새로운 인터넷 주소를 이용자들에게 퍼뜨려 규제를 피해왔다. 그렇지만 해당 문제에 대한 여성들의 대규모 청원이 계기가 되어 경찰 즉은 국제공조를 통해 소라넷 사이트를 폐쇄하게 되었다.

불법촬영물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까지, 소라넷에서 이뤄졌던 모든 성범죄가 트위터에서도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다. 즉, 트위터는 이미 기존의 소라넷을 대체하는 하나의 시장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트위터를 비롯한 SNS(라인, 텔레그램, 디스코드)들은 모두 해외 서버라는 이유로 수사 자체가 어렵다는 평가를 받으며, 대체로 수사가 지연되는 특성을 보인다.

한편, 트위터는 자체 플랫폼 내 공유 기능 및 타 플랫폼을 통한 백업이 활성화되어 있다. 즉, 트위터 게시물에 대한 '박제' 의도가 있는 사람은 이러한 플랫폼을 이용해 얼마든지 타 플랫폼을 통해서 트위터 내 디지털 성범죄 관련 이미지, 텍스트, 영상을 영구적으로 온라인 상에 보존시킬 수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관련 게시물을 직접 업로드 한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에 해당하더라도 트위터 이용자의 의도에 따라 얼마든지 게시물의 복제, 유포, 공유, 박제, 재유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트위터에서는 불법촬영물이 보다 쉽게 공유 및 거래될 수 있는 실정이다.

[그림 18] 트위터 게시물을 백업하는 외부 플랫폼 사례



archive.org 사이트. 웹페이지, 이미지, 오디오, 동영상 등 여러 형태를 영구적으로 보존시킬 수 있고, 보존된 이후에는 해당 자료를 검색할 수도 있어 디지털 성범죄의 전파성을 높임.

[그림 19] 트위터 게시물을 백업하는 외부 플랫폼 사례



archive.is 사이트. 위의 archive.org 사이트와는 달리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을 하는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음. 웹페이지 url을 입력하여 게시물을 쉽게 영구적으로 보존시킬 수 있어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의 전파성 및 접근성을 높임.

3) 여성에 대한 성착취를 묵인 및 조장하는 기관으로 기능

트위터는 미국의 성착취 대응 기관인 National Center on Sexual Exploitation(NCOSE)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성착취를 조장하는 기관 열 두 곳 중 하나로 지목되며, 그 중에서도 하드코어 포르노그래피를 배포하고 성매매를 촉진시키는 플랫폼에 해당한다(NCOSE, 2018).

[표 15]와 같이, 2016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최명길 의원의 보고에서도 트위터는 성착취를 양산 및 알선하는 플랫폼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명길 의원(송파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통신심의 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트위터는 '성매매·음란' 게시물에 대한 시정 요구를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최명길 의원실, 2016).

[표 15] ['성매매·음란' 정보 SNS별 시정요구 현황]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6월	계
트위터	25	233	3,589	9,839	10,165	2,052	25,903
페이스북	1	-	11	48	36	8	104
인스타그램	-	-	-	-	9	6	15
텀블러	-	13	245	780	9,477	5,483	15,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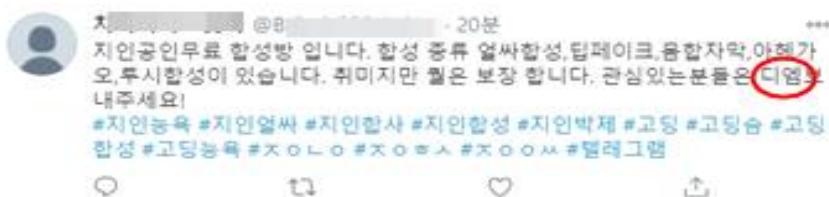
트위터는 성착취물의 거래 및 성매수 제안의 경로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트위터에서 계정주가 여성 청소년임이 부각되는 키워드가 언급될 경우, 해당 계정주를 상대로 한 성매수 제안 및 유사성매매(자위 영상 거래, 속옷 및 스타킹 판매, 배설물 유통 등) 종용이 다수 이뤄지고 있다.

[그림 20] 트위터 내 유사 성매매 암시 사례



위 그림처럼 트위터 계정 이용자는 스타킹 사진을 게시하면서 여성이 착용했다고 가정된 스타킹을 판매하거나 유사성매매를 암시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스타킹을 착용한 여성에 대한 개인정보를 게시하는 경우가 잦은 빈도로 발생한다. 피해 여성에 대한 개인정보가 게시된 경우, 온라인 상의 스토킹에 가까운 개별 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그림 21] 디지털 성범죄 유통 채널로서의 'DM' 관련 사례 1



디지털 성범죄 유통의 경로로 DM 이용을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그림 22] 디지털 성범죄 유통 채널로서의 'DM' 관련 사례 2



디지털 성범죄 유통의 경로로 DM 이용을 간접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DM이라는 단어를 명시하지 않아도 트위터 이용자들이 DM 기능을 통해
메시지를 발신할 것을 유도하고, 폐쇄적인 경로로 디지털 성범죄를 반복해왔음을
타 이용자들에게 암시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있음.

위 그림과 같이 트위터 내 메신저(DM, direct message) 기능은 유통 및 거래의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트위터 DM은 전송 이후 삭제가 용이한데 발신인과 수신인
의 대화창에서 해당 쪽지를 모두 삭제할 수 있기 때문에 성착취물 거래 기록을 온
폐하기에 수월하다. 그리고 다이렉트 메시지 수신 해제 기능이 자유롭고 그룹 다이
렉트 메시지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메시지 관리에 대한 외부의 개입이 어려운
폐쇄적 특성을 지닌다.

4) 트위터 플랫폼 내부 신고 기능의 효용성 부재

트위터는 내부적으로 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나 효용성은 낮게 평가된다. 모니
터링 사업 시 2020년 10월에 신고한 계정들이 2020년 11월에도 그대로 유지되어
있고 활동을 지속하는 사례들도 보였다. 즉, 트위터에서 문제가 되는 관련 계정들은
신고를 받아 일시적으로 활동 중지 조치를 겪는 것이 아니라 신고 접수 이후에도
많은 팔로워를 가지고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다.

트위터에서 이뤄지는 디지털 성범죄의 대다수는 이미지와 텍스트가 결합된 #지인
합성, #지인능욕, #지인박제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트위터 내 개인정보
보 침해에 대한 신고 시 사진 및 이미지가 개인정보 침해의 항목으로 신설될 필요
가 있다. 더불어, 트위터 내부 신고 이후 신고자에게 해당 계정 및 게시물에 대한
조치 과정을 안내하는 정보 전달 프로그램이 신설되어야 그 효과성이 높아질 것으
로 보인다.

또한, 트위터 내부 신고 창구의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트위터 내 신고 기능이 경찰 신고로까지 연계 및 연동될 수 있는 추가적인 절차 마련이 요구된다.

[그림 23] 트위터 내 개인정보 침해 신고 화면 사례

문제 신고하기	문제 신고하기
이 트윗이 어떻게 가학적이거나 유해한가요?	구체적으로 명시해주세요 (해당되는 대로 선택하세요):
무례하거나 모욕적입니다.	<input type="checkbox"/> 연락처 (예: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집 주소 또는 물리적 위치 (예: GPS 좌표)
특정 사용자를 괴롭히는 내용이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금융 계좌 정보
보호받아야 할 범주(예: 인종, 종교, 성별, 정치성, 장애)에 대한 혐오를 조장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정부 발행 신분증 또는 신분증 번호
폭력적 위협 또는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해킹된 자료
자해 또는 자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기타
다른 유형의 트위터 운영원칙 위반 사항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트위터 내부 신고 창구에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형태의 가학적이고 유해한 게시물을 신고할 수 있음. 그러나 개인정보의 종류에 신원을 특정할 수 있거나 직간접적인 관련성을 드러내는 이미지 형태는 누락되어 있음.

[그림 24] 트위터 내 성적 게시글 신고 화면 사례

문제 신고하기	문제 신고하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이 트윗의 어떤 점이 문제인가요?	미디어에 어떤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나요?
관심 없는 트윗입니다.	성인
의심스럽거나 스팸입니다.	폭력
민감한 사진 또는 동영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혐오 콘텐츠
가학적이거나 유해한 내용입니다.	
자해 또는 자살 의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사진 또는 동영상
트위터 운영원칙 위반 사항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트위터 운영원칙 위반 사항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트위터 내부 신고 창구에서는 <민감한 사진 또는 동영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목에 따라 성적인 게시물 및 이미지를 신고할 수 있으나 <성인>이라는 하위 항목만으로 신고 가능함.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해당 게시물 및 이미지를 청소년이용불가 콘텐츠 정도로만 인지하게 될 뿐, 그것이 디지털 성범죄와 유관하다는 것을 인지하기 어려운 디자인 구조임.

[참고문헌]

- 최자은 외(2018), 디지털성범죄 유통실태 보고서 :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 배상균(2019),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검토 : 딥페이크 (Deepfake) 포르노 규제를 중심으로”, 외법논집 제43권 제3호
- 김정혜(2020), “텔레그램 ‘n번방’ 등 온라인 매개 성폭력 사건들을 통해 본 이 시대 성폭력의 특성”,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강희영 외(2020),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방안,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2020), 2020 사전 모니터링 분석보고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아시아경제, 2018.10.14. “지인 능욕을 아시나요. 카톡, 페북, 인스타 사진 어쩌나”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01421504411643> (2021.03.01. 검색).
- 이데일리, 2020-04-03. “말뿐인 아동 성착취물 ‘무관용 원칙’...n차 가해 손놓는 플랫폼”,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46406625732512&mediaCodeNo=257>rack=sok> (검색일 : 2020.03.01)
- 한겨레신문, 2020-06-04. “[단독] 트위터에서도 성착취...‘박사’ 모방한 ‘조교’들”,
<http://www.hani.co.kr/arti/PRINT/947804.html> (검색일 : 2020.03.01)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Safe Seoul 활동보고서

2020 서울시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제작 : (사) 탁틴내일

작성 및 편집 : 석희진, 이지원

제출일 : 2021.03.31.

*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사)탁틴내일에 있으며 무단전제와 복제를 금합니다.